

英, 2009년생부터 담배 못 산다...비흡연세대 법 1차 통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흡연 규제...전자담배 규제도 포함 보수당 시끌...보리스 존슨 "처칠의 당이 시가 금지 미친 일"

영국에서 단계적으로 담배 판매를 제한해 비흡연 세대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 의회에서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영국 하원은 16일(현지시간) 오후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에 대한 2차 독회에서 찬성 333표 대 반대 67표로 법안을 하원 심사의 다음 단계로 넘겼다.

정부가 '흡연 없는 세대'를 만들겠다면서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해마다 담배를 살 수 있는 연령이 1년씩 상향 조정돼 2009년 1월1일 출생자(현 15세)부터는 평생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담배를 구입할 수 없게 된다.

특정 연령 미만에 대한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다.

당국은 법정 연령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 담배를 판매한 상점에 100파운드(약 17만원)의 벌금을 현장에서 부과할 예정이다.

정부는 새 제도를 2027년까지 시행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자담배에 대해 일회용 제품은 금지하고 청소년이 좋아할 만한 향이나 포장, 판매방식을 제한하는 조항도 법안에 담겼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법안이 집권 보수당 수십명의 반대 표결 속에 첫 관문을 통과했다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금

연 규제를 부과하려는 수백 총리의 구상이 집권 보수당 일부 인사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고 전했다.

AP통신도 이번 법안을 획기적인 흡연 금지법이라고 표현했다.

이 법안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꼽힌 뉴질랜드의 금연법 모델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다만 이후 출범한 뉴질랜드 보수 연정은 올해 초 해당 정책을 폐기했다.

리시 수석 정부는 이번 법 제정으로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비흡연 세대를 만들면 금세기 말까지 심장질환과 폐암 등 4만7천건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국에 따르면 영국에서 흡연자는 인구의 약 13%인 640만명이며, 매년 8만명이 흡연과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한다. 18세 미만은 전자담배 구입이 불법인

데도 미성년자 약 20%가 전자담배 흡연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빅토리아 앳킨스 보건장관은 하원 토론에서 "너무 많은 사람이 흡연 때문에 수명이 단축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변화를 겪는다"며 "중독에는 자유가 없다. 다음 세대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제1야당 노동당은 이 법안에 찬성하지만, 집권 여당인 보수당 내 자유주의 성향 의원들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보수당답지 않은' 정책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보리스 존슨 전 총리는 지난주 캐나다 방문 중에 "(시가 애호가였던) 윈스턴 처칠의 당이 시가를 금지하다니 미친 일"이라고 말했다.

리드 트러스 전 총리도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보건 경찰"이라며 반대 의사



영국 담배 판매점.

를 지속해서 밝혔다.

실제로 이날 하원 표결에서 보수당 의원 57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기권한 보수당 의원은 106명에 달했다.

노동당은 표결 직후 "수석 총리가 보수당 내 리드 트러스파에 맞설 힘이 없어 자유 투표를 허용함으로써 이 법안

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법안 통과는 노동당 의원들 덕분"이라고 꼬집었다.

앞으로 법안은 위원회 심사와 전체회의의 보고, 3차 독회를 거쳐 하원을 최종 통과하면 상원으로 이송된다. 상원 최종 표결은 6월 중순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다리 막고 고속도로 봉쇄'...美 서 親팔레스타인 시위

샌프란시스코·시애틀·뉴욕 등 "전쟁·무기 공급 중단" 촉구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습한 이틀 뒤인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곳곳에서는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중단을 촉구하며 주요 다리를 점거하고 고속도로를 봉쇄하는 등 시위를 벌였다.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지난 15일 오전 7시 30분부터 5시간 동안 시위대가金門교(Golden Gate Bridge)를 막아서며 가자지구 전쟁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미 NBC 방송이 16일 보도했다.

수십명의 시위대는 차량을 다리 위에 세우고 견인되지 않도록 체인으로 연결했다. 또 "가자를 위한 세상을 멈춰라(stop the world for Gaza)"고 적힌 팻말을 들고 차량 이동을 막았다.

이 과정에 약 20명이 경찰에 붙잡혔고,金門교는 정오가 넘어야 다시 개통돼 주변 지역이 교통혼잡을 빚었다.

친팔레스타인 시위대는 앞서 지난 2월에도 휴전과 미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공급 중단을 촉구하며金門교를 봉쇄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미국의 시위대가 15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중단을 촉구하며 캘리포니아 오글랜드 인근 고속도로를 점거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는 샌프란시스코와 오글랜드를 연결하는 다리인 베이 브리지(Bay Bridge)에서 시위를 열었다.

이날 인근 오글랜드 880번 고속도로에서는 시위대가 시멘트로 채워진 55갤런 드럼통에 자신들을 쇠사슬로 묶어 차량 이동을 차단시켰다.

같은 날 시카고에서는 공항으로 이

어지는 고속도로를 시위대가 막아섰다. 이들은 "폭탄 보내는 것을 중단하라"고 적힌 배지를 착용하고 시위를 벌였다.

'시카고 반대자들(Chicago Dissenter s)'이라는 이 단체는 소셜미디어(SNS)에 "오헤오 국제공항은 미국에서 가장 큰 공항 중 하나"라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미국 지원을 받는 이스라엘의 폭

격으로 고통받는 동안에는 평소와 같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들은 또 시위 날짜를 지난해 세금 신고 기한인 15일에 맞췄다고 설명했다.

시애틀에서는 시애틀-터코마 국제공항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시위대에 의해 봉쇄됐고, 뉴욕시에서도 시위로 인해 브루클린 다리의 교통이 차단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日정부, '곰 포획' 지자체에 교부금

곰 습격으로 1년간 '역대 최대' 219명 사상

일본 정부가 곰에게 습격당해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빈발하자 곰 포획과 개체수를 조사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일본 환경성은 전날 계획적 포획을 허용해 개체수를 관리하는 동물인 '지렁이'가 포획되는 곰을 추가한다

포획이 허용되는 곰은 홋카이도에 서식하는 불곰과 혼슈에 사는 반달가

곰이다. 일본 주요 섬 가운데 가장 작은 시코쿠에서는 멸종 가능성이 있어 곰을 포획할 수 없다.

환경성은 곰 피해가 급증하는 가을을 앞두고 교부금 지급 대상 사업을 추진 계획이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곰 습격으로 역대 최다인 219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다. 그중 사망자는 6명이었다.

/연합뉴스

호주 총리, 흥기난동 범인 막은 프랑스인에 영주권 약속

호주 시드니에서 벌어진 쇼핑몰 흥기난동 사건과 관련, 범인을 막아섰던 프랑스 출신 외국인 노동자에게 호주 총리가 영주권을 약속했다.

16일(현지시간)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프랑스 출신 건 설 노동자 다미앵 게로를 언급하며 그의 특별한 용기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앨버니지 총리는 게로의 비자가 7월 만료 예정이고, 그가 더 오래 호주에 남기를 원한다는 소식에 "비자 연장 수속 중인 게로에게 원하는 기간만큼 머물러도 좋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호주 시민이 되는 것을 환영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지난 13일 오후 시드니 동부 교외 본 다이 정크먼 웨스트필드에서는 40대 남성 카우치가 30cm 길이의 흥기를 쇼핑몰들에게 휘둘렀고 6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게로는 볼라드(진입 방지 막)를 들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던 카우치를 막아섰다. 게로가 카우치의 진입을 막아주는 동안 쇼핑몰객들은 대피할 수 있었고, 출동한 경찰은 카우치를 사살했다.

/연합뉴스

www.kjdaily.com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구 222-8171
- 산수지구 224-4188
- 학운지구 673-6836
- 화정지구 372-9140
- 금호지구 376-7153
- 풍암지구 603-0311
- 노대지구 674-3581
- 상수지구 453-2554
- 광천지구 374-2120
- 진월지구 676-2726
- 봉선지구 673-6836
- 백운지구 673-0123
- 두암지구 266-1920
- 농성지구 362-4102
- 유동지구 222-8171
- 운암지구 529-3548
- 용봉지구 261-1503
- 신가지구 954-1420
- 양산지구 574-3745
- 하남지구 951-9954
- 운남지구 952-1687
- 오치지구 261-9461
- 문흥지구 261-9462
- 일곡지구 573-3200
- 첨단지구 971-7374
- 치평지구 371-9584
- 수완지구 955-0451
- 광산지구 944-0993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목포지사 061)278-0740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